

국어 보조동사의 특성

손 세 모 들

〈목 차〉

- | | |
|-----------------------|-------------|
| 1. 들머리 | 하는 이유 |
| 2. 국어 보조동사의 개념 | 3. 보조동사의 특성 |
| 2.1 “-게”와 “-지”형을 배제 | 3.1 구문론적 특성 |
| 하는 이유 | 3.2 의미적 특성 |
| 2.2 “-고”형을 배제하는 이유 | 3.3 화용론적 특성 |
| 2.3 “ㄴ/르가”, “-나”형을 배제 | 4. 마무리 |

1. 들 머 리

이 논문은 국어 보조동사의 특성을 정리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보조동사의 특성은 보조동사를 독립된 범주로 세우는 근거가 된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것들과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보조동사의 특성 고찰은 보조동사의 개념 정립과 범위 한정에 도움을 주며 보조동사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혀 줄 것이다.

이 논의는 보조동사를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논의에서 다룬 것은 보조동사의 개념과 특성이다.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보조동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개념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점검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보조동사의 특성은 구문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의미적, 화용론적인 특성을 살폈다. 보조동사 개별 형태에 대한 것이나 개별적인 의미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보조동사를 설명함에 있어 좀더 타당성 있는 설명을 구하기 위한 시안이다. 보조동사의 특성을 통해 보조동사의 기능을 파악하고 나아가 보조동사가 명제와 직접 관련된 것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논의가 국어 보조동사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국어 문법 체계에서 보조동사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국어 보조동사의 개념

국어의 동사 가운데는 <V1 + V2>의 구조에서 후행동사로 사용될 때 동일 형태가 단순문의 서술어로 쓰일 때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형태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V2들을 보조동사라는 이름으로 불러 왔다. 국어에서 보조동사라는 이름은 출발에 있어서나 그간의 사용에 있어 여러가지 이질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¹⁾

이 장에서는 국어의 보조동사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려고 한다.

1. 국어의 보조동사는 표면구조상 <V1+어/고+V2> 구조에서만 나타난다.
2. 국어 보조동사는 명제에 문법적인 의미를 부가한다.
3. 보조동사들은 본동사 때와는 다른 구문론적, 의미적, 화용론적 공통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보조동사의 개념이 올바른 것인가는 전체 논의를 통해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가운데 보조동사의 선행 형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자.

보조동사를 한정하는 데 가장 원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V1과 V2 사이에 매개하는 문법적인 형태이다. 보조동사의 선별에 선행 어미가 고려되

1) 최현배(1980)의 보조동사 가운데 제외되어야 할 것은 대부분 “하다”와 관련된 것들이다. 서정수(1980)에서는 “비합성적 보조동사”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어야 하는 것은 국어가 첨가어이고 보조동사 특유의 형태가 없으며, 어휘 서술을 담당하는 동사가 앞쪽에 온다는 어순상의 특성때문이다. 보조동사 고유의 형태가 없다는 사실은 국어의 보조동사를 구조적 환경에서 파악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국어의 보조동사는 <V1+어/아+V2>라는 구문적 제약을 가진다. “-고”를 매개로 하는 형태 중에는 “싶다”만이 보조동사에 속한다. 국어의 <V1+V2> 구조에는 V1과 V2 사이에 대부분 매개되는 문법 요소가 있다. “-아/어”, “-게” “-지” “-고”들이 그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네 가지 어미를 매개로 하는 형식을 모두 보조동사 구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어”와 “-고”를 매개로 하는 것만을 보조동사 구문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아/어”를 매개로 하는 <V1+V2> 구조와 “-고 싶다”만을 보조동사 구문으로 보기로 한다.

보조동사를 “-어”와 “-고”를 선행시키는 동사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와 “-고”형의 일부만이 구조체 내에서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의미면에서 보조동사는 동일 형태가 독립된 서술어로 사용될 때와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어휘 의미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을 가진다. 또 보조동사는 <V1+V2> 구조가 해체되면 V1, V2, 선행 어미의 어느 부분도 구조체에서 V2가 나타내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어의 보조동사는 선행어미와 일종의 관용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와 “-고” 이외의 다른 구조의 V2들은 일반 동사 때의 어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거나 선행어미가 그 구조체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2.1 “-게”와 “-지”형을 배제하는 이유

“-게 하다”는 선행 용언과 “하다” 두 곳에 “-시-가” 결합될 수 있다. 이는 “-게 하다”의 “하다”가 상위문의 주동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형의 보조동사들은 보조동사에만 “-시”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상 형태와의 결합에서도 “-게 하다”는 접속문의 특성을 보인다.

“-지”와 관련된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도 보조동사에서 제외된다. “말다”를 제외한 두 형태가 보조동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정수(1980)에서 잘 설명되었다. 요사이의 두 형태를 보조동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말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 “-지 말다”는 ‘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문장 유형의 분포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하다”, “못하다”와 대체로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 따라서 두 형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말다”가 “아니하다”, “못하다”와 구문에서 구별 사용되는 형태라는 것은 통시적인 검증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²⁾

2.2 “-고”형을 배제하는 이유

“-고”를 매개로 하는 V2 가운데는 “있다”와 “싶다”만을 보조동사로 다룬다. “나다”, “말다”, “보다” 등은 보조동사로 다루지 않는다. 이들을 보조동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들이 여전히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를 매개로 했을 때와 같이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의 의미로 이야기되는 ‘완료’는 선행어미 “-고”에 의한 접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보조동사의 의미가 구조에서 V2에 의해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완료’는 “-고”로 연결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 연결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들 형태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의미이다. 세 형태가 모두 ‘완료’를 표현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싶

-
- 2) 중세국어 언해 자료에는 “말다”에 “아니하다” “못하다”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자 대응자가 있다. 不, 勿, 休, 無, 莫 등이 그것이다. “말다”가 일관되게 대응되는 글자를 가진다는 사실은 중세국어 보조동사의 일반적인 사용과 차이를 보인다. 또 “아니하다”, “못하다”가 그에 대당된 예가 많은데 비해 “말다”는 勿, 莫에 대응 번역된 예가 더 많다. 이는 중세 때부터 이들 형태가 부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공유하면서 상보적인 분포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말다”는 “아니하다”, “못하다”와 상보적인 기능을 가지는 형태로 보는 것이 좋다.

다”의 “-고”는 다른 구조체의 “-고”와 기원이 다르다. “-고 싶다”의 “-고”는 통시적으로는 “-고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싶다”가 ‘희망’이라는 양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고”가 “-고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다”, “보다”, “말다” 등을 보조동사로 보려는 이유는 “-고”를 선행어미로 하는 일련의 보조동사 구조를 가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싶다”의 “-고”가 기원적으로 다른 구조체의 “-고”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고”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일련의 형태들을 묶으려는 가정이 성급한 것임을 보여 준다. “-고”를 매개로 하는 일련의 형태들이 보조동사로 취급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 지적한 사실들은 현대 국어에서 <V1+고+V2> 구조체가 아직 관용적인 구조로 굳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를 매개로 하는 보조동사 형태가 “-어”형보다 후대에 발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언젠가 “-고”를 매개로 하는 “나다”, “말다”, “보다” 등도 어휘 의미를 잃고 독자적인 보조동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3 “ㄴ/ㄹ가”, “-나”형을 배제하는 이유

“-어”와 “-고” 이외에 “ㄴ/ㄹ가”나 “-나” 등과 연관된 “보다”, “싶다” 등을 보조동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두 가지 점에서 보조동사일 수 없다. 첫째, 선행어미가 “-아”, “-고”와 달리 연결어미가 아닌 종결어미라는 점이다. 종결어미 뒤에 결합되는 낱말은 상위문의 본동사로 보아야 하므로 어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양상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부가 의미를 첨가한다는 보조동사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ㄴ/ㄹ가 보다/싶다”, “-나 보다” 등의 의미로 제시되는 ‘추측’은 “보다”와 “싶다”가 문맥에서 드러내는 의미일 뿐이다. 두 동사는 얼핏 전혀 다른 의미의 동사인 듯하지만 둘다 ‘생각하다’류의 의미를 가진다. “보다”는 눈으로 봄으로써 인지하는 작용까지를 의미하게 되고 “싶다”도 통시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썬의 의미를 갖는다. 현대에도 “싶다”가 ‘주관적 판단’의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은 “싶다”가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진다는 한 반증이 된다. “ㄴ/ㄹ가”, “-나” 등은 마음 속에 있는 회의, 의구 따위를 표현하는 형태로써 ‘생각하다’와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추정’의 의미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한 가정 세 가지 가운데 매개 어미에 대한 것만을 자세히 다루었다. 보조동사가 명제와 관련된다는 두번째 요건은 3장에서 특성을 설명하면서 부분에 따라 지적하기로 한다.

3. 보조동사의 특성

보조동사는 <V1+아/고+V2>라는 구조와 분리되어 기능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보조동사의 특성은 보조동사 구조의 특성이기도 하다. 보조동사 구조의 특성은 표면구조가 같은 합성동사, 복합문과 보조동사를 차별화하며 보조동사를 하나의 문법 범주로 취급해야 하는 근거이다.³⁾ 따라서 그동안 보조동사의 특성은 대부분 세 구조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의 관점에서 파악되어 왔다. 보조동사의 특성들은 궁극적으로 보조동사가 선행 용언이 아니라 선행 용언까지를 포함하는 명제(혹은 문장)와 직접 결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서는 현대 국어의 보조동사가 가지는 특성을 구문론적, 의미적,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보조동사의 특성 가운데 기왕에 많이 지적된 것들은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3.1 구문론적 특성

구문론적 특징은 보조동사의 특성 중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이다.⁴⁾ 보조동사의 구문론적 특성 가운데는 복합문, 합성동사와 모두

3) 보조동사 구조를 합성동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조는 합성동사와 구문론적, 의미적 차이를 가지므로 단일어인 합성동사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이다.

4) 이상태(1971), 김기혁(1987), 안명철(1990)에서 전반적인 특성이 논의되었고 서정수(1990c: 3), 김창섭(1981: 23~35), 김석득(1986), 이관규(1987), 김명희(1984) 등에서 부분적인 특성이 언급된 바 있다.

다른 보조동사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고 둘 중 어느 한 쪽과만 차이를 보이는 특성도 있다. 보조동사들의 일관된 구문론적 특징은 보조동사가 동일 형태인 일반 동사의 특수한 의미 쓰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보조동사를 독립된 범주로 보아야 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두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다루었으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1) 보조동사만의 특성

보조동사들만의 특성 가운데 “-고”형과 “-어”형에 공통되는 고유의 것은 자립성의 결여, 논항 수와의 무관성, 명제 대응어와의 결합 가능성과 임의 생략 가능성이다. 이외에 “-어”형의 경우는 동일 형태의 선행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더 있다.

(1) 자립성의 결여

구문론적인 자립성의 결여는 보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보조동사의 자립성 결여란 표면구조에서 보조동사가 반드시 V1을 필요로 하는 현상을 말한다. “-어”형의 경우 복합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합성동사도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를 인정하는 한 후행 동사가 독립되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경우 후행 동사가 행동의 주안점인 경우도 있다. 반면에 보조동사는 어떤 경우에도 선행 동사 없이 독자적으로 서술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고”형도 “싶다”는 현대국어에서 독립된 동사로 사용되지 못한다.

자립성의 결여는 보조동사가 동일 형태의 일반 동사와 달리 문장의 서술 기능을 온전하게 담당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다시 말해서 보조동사가 어휘 서술 기능 이외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라는 사실을 예견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실제로 시제, 상, 서법 등을 담당하는 문법 형태소들은 서술부에 관여하지만 독자적으로 서술구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어휘적인 실질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형태는 자립형태소이지만 문법형태소처럼 어휘형태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조동사를 동일 형태의 일반 동

사와 따로 세울 근거가 마련된다.

(2) 논항 수와의 무관성

보조동사는 논항의 수나 격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논항은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복합문의 경우에는 V2가 상위문의 본동사이므로 상위문의 논항을 결정한다. 합성동사는 V1과 V2의 논항이 같은 경우에만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이루므로 V2의 논항에 변화가 없다. 반면에 보조동사는 논항 구조가 다른 V1에도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논항은 언제나 V1에 의해 결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보조동사가 어휘 서술을 담당하는 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다”를 통해 검증해 보자.

“주다”는 본동사로 쓰일 때 3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술어이다. 3가지 논항은 격관계로 보면 행위격(시원격), 대상격, 그리고 경험자격(목표격)이다. 이와같은 “주다”의 논항 수와 격관계는 수여동사라는 이름이 주어질 정도로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보조동사로 사용될 경우 “주다”는 본동사 때와 달리 그에 선행하는 명제의 논항 수가 일정하지 않다.

(1) a. 부디 앞으로는 저를 늘 주디라고 불러 주세요

b.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1a)는 논항이 3개이고 (1b)는 2개이다. (1)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주다”가 보조동사인 경우 본동사 때와 달리 그에 선행하는 명제의 논항 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격관계에 있어서도 본동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1a)는 논항의 수에 있어서는 본동사의 경우와 같지만 격관계로 보아서는 본동사 “주다”와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행위자격과 경험자격은 존재하나 대상격에 해당하는 논항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도구격(“주디라고”)이 드러난다. 이동을 하는 실체인 대상격이 없으므로 행위자격이 동시에 시원격이 되지 않으며, 경험자격이 동시에 목표격이 되지도 않는다. (1b)에서는 논항이 2개뿐이며 행위자격과 대상격만 존재한다. 이때도 경험자격은 시원격이 되지 못한다.⁵⁾

5) “주다”가 본동사 때나 보조동사 때에 같은 격틀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기

(1)은 수여동사라는 범주로 하위 분류될 만큼 대상물의 이동과 그 출발점인 행위자격, 도착점인 경험자격이 특징적인 “주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이러한 특징들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보조동사 “주다”의 논항 수나 격관계가 본동사 때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본동사의 경우와 달리 보조동사인 경우에는 그에 앞서는 명제의 논항 수나 그로 인한 격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1a)와 (1b)의 논항과 격관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2) a. ()는 나를 늘 주더라고 부른다.

b. 나귀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2)는 (1)에서 보조동사 “주다”를 제외한 것이다. (2a)에는 3개의 논항이 필요하다. 격관계는 행위자격, 경험자격, 도구격이다. 이때 행위자격과 경험자격은 시원격과 목표격이 되지 못한다. 한편 (2b)는 행위자격인 “나”와 대상격인 “나귀의 목덜미”의 2가지 논항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물론 행위자격은 시원격이 아니다. 결국 (2)는 논항 수나 격관계에 있어 (1)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V1에 보조동사가 결합되었을 때나 결합되지 않았을 때나 논항 수와 격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논항과 격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순전히 선행동사의 작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조동사로 쓰일 때 본동사 때와 격관계나 논항 수가 다르며 선행동사에 따라서 그 양상이 또한 달라진다는 것도 보조동사 “주다”가 논항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에서 앞선 명제의 논항과 그 격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주다”의 선행동사인 “부르다”와 “어루만지다”라

동(1978)에서는 [+__A/S, G, O]를 제시한 바 있다. 보조동사의 경우 내포된 보문장을 앞에 거느리는 점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1)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주다”의 격틀은 본동사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선행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이다. 논항은 본시 술어에 의해 결정된다. 보조동사 “주다”가 논항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며 선행동사와 논항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결합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술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다”의 예에서 보듯이 보조동사는 논항의 수나 격관계에 관여하지 못한다. 논항의 결정이 순수하게 선행 동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보조동사가 어휘적으로 서술부에 결합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같은 보조동사의 특성은 거꾸로 논항의 결정에 관여하는 후행 동사는 보조동사가 아니라는 가정을 낳는다. 논항 수와의 무관성은 형태상의 동일성때문에 보조동사와 합성동사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3) 명제 대용어와의 결합 가능성

보조동사는 명제를 대용하는 대용어와 직접 결합이 가능하다.

- (3) a. 선생님은 제가 모실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TV문학관 “해산바가지”>
 b. ?선생님은 제가 모셔 드릴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3a)에서 “그래”는 앞선 문장 전체를 대용하는 대용어로 ‘당신이 선생님을 모셔’로 해석된다. “주다”가 문장 대용어인 “그래”에 결합되었다는 사실은 보조동사가 구문적으로 앞선 동사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문장과 직접 성분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종래의 주장처럼 보조동사가 선행동사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동사 구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성들이 보여 주는 현상과도 통한다.

보조동사 앞에 대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김창섭(1981: 23~25)에서 “보조동사 구문에서의 대동사화”로 간략히 제시되어 이후 많은 학자들 사이에 “분리 대용 가능성”으로 수용되었다.⁶⁾ 이것은 보조동사 구조를

6) 일부 대용화 가능성은 김창섭(1981) 이후 김명희(1984), 김석득(1986), 김기혁(1987), 이관규(1987)등에서 수용되었다. 합성동사는 하나의 낱말이므로 분리 대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접속문은 두 동사가 모두 각기 대용이 가능하여

전제로 한다. 그러나 (3)에서 보았듯이 앞 문장에 보조동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뒷 문장에서 대용어와 보조동사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조동사 구조를 전제로 하는 분리 대용 가능성은 타당하지 않다. 분리 대용 가능성을 인정하려면 앞 문장에 보조동사 “주다”가 사용된 (3b)가 (3a)보다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3b)는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3)에서 “그래”가 대용하는 것이 선행 용언이 아니라 앞선 문장 전체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직관에도 맞는다.

분리 대용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보조동사 구조가 전제되는 경우에도 선행 동사 자리에 있는 대용어는 선행 용언만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얼핏 선행 동사만을 대용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국어 문장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뿐이다. 위치상 보조동사의 앞 쪽에 대용어가 사용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지 실제로 선행 용언만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 동사만 대용되는 경우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한 자리 서술어의 경우뿐이다. 실제로 있어서는 선행 동사구 전체를 대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⁷⁾

- (4) 당신이 워낙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평생 이러고 있은거지 장사를 시켜 주기만 해 봐요. 애들 다 컸겠다. 왜 못해요?
〈TV 손자병법〉

(4)의 “이러고”는 ‘(내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를 의미한다. 보조동사 앞의 대동사가 선행 동사만을 대용하지 않는 것은 대동사의 구성 자체가 “하다”에 대용 부사들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조동사 구조에서 선행어 자리에 오는 대용어는 앞선 문장의 선행 용언만을 대용하는 대동사가 아니라는 점이

보조동사 구조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조동사 구조의 분리 대용 가능성은 보조동사 구조의 주요 특성으로 인정되었다.

- 7) 보조동사 구조가 아닌 경우에도 대동사 “그리하다”가 선행절 서술어만 선행사로 하는 경우는 한 자리 서술어인 경우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희(1986: 8~12) 참조.

다. 명제 대용어이거나 동사구절을 대용하는 대용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명제(문장) 대용어와의 직접 결합 가능성’ 따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명제 대용어와의 직접 결합 가능성으로 처리하면 보조동사 구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조동사 구문의 대동사화보다 폭넓은 설명력을 가지는 이점이 있다. 선행 동사와 선행 동사구절을 대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4)처럼 본시 보조동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을 대신하는 대용어에 보조동사가 결합된 경우까지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명제 대용어와의 직접 결합 가능성은 보조동사가 동사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명제와 자매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보조동사가 문장 전체와 관련된 문법적인 의미 범주의 형태임을 암시한다. 또 보조동사 구조에서 보조동사가 대용화되지 못하는 것은 보조동사가 문장의 서술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가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이다. 대용은 실질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의미면에서 본다면 보조동사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⁸⁾

(4) 임의 생략 가능성

보조동사의 임의 생략 가능성은 여러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단순문

-
- 8) 그 동안 보조동사가 대용화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이 주어지고 그 이유를 밝히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 최근에 보조동사만의 대용화 불가능이 보조동사가 문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안명철(1990)). 김기혁(1987: 21)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보조동사가 어미와 같은 구실을 하므로 홀로 대용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법 요소는 그 자체가 형식화되어 있어서 생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간략한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법 요소 가운데 조사의 경우를 보면 문법적인 기능만 가지는 것과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른바 격조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고 때로는 독특한 의미를 첨가하기 위해 보조사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반해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사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다른 형태로 대체되지 못한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조동사의 경우도 문법화의 정도에서뿐 아니라 의미면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용화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장 전체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가지므로 대용 서술어로 대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서 보조동사가 생략되어도 논리적 서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 (5) a. 철수는 서류를 찢어 버렸다(철수는 서류를 찢었다)
 b. 야, 너 들어와 봐(야, 너 들어와)
 c. 생명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되는 신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생명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되는 신기함을 가진다)
 d. 너랑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나오라고 했다(너랑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시다)

(5a-d)는 보조동사를 생략한 괄호 안의 뜻과 구체적인 행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주어에 대한 실제적인 서술은 V1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임의 생략 가능은 다른 구문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보조동사가 문장의 서술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보조동사의 임의 생략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예문의 선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일 뿐 보조동사가 임의 생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⁹⁾ 그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6) a. * 철수는 서류를 찢어, 영화는 태워 버렸다.
 b. * 철수는 짐을 내려, 영화는 올려 주었다.

(6a, b)에서 보이는 비문법성은 접속문이라는 문장 구조와 연결어미에서 비롯된다. 위와 같은 예는 보조동사의 특성에 대한 전제, 즉 단순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보조동사는 접속문에서의 일반적인 동일 성분 삭제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거나 대용되지 않는다. (6)은 연결어미도 부자연스럽다. 두 문장의 단순한 연결에는 “-고”가 자연스럽고 “-어”는 사용될 수 없다.¹⁰⁾ 실제로 (6a, b)에 “-고”를

9) 김기혁(1987: 17~19)에서는 보조동사 구조에서 V1과 V2 한 쪽의 일부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 접속문에서 “-어(서)”는 계기적인 시간이나 이유/원인 등의 접속 기능을 드러낸다. (6)의 예들은 단순한 나열이므로 접속어미의 사용에 오류가 있다. 단순한 나열은 대표적인 접속어미 “-고”에 의해 표현된다. 접속어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서정수(1990a: 493~517) 등 참조.

대체한 “철수는 서류를 찢고, 영화는 태워 버렸다”는 문법적이다. 반면에 (6a, b)에 “버리다”나 “주다”를 결합하더라도 “-어”를 사용하면 (7)처럼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 (7) a. * 철수는 서류를 찢어 버려, 영화는 태워 버렸다.
b. * 철수는 집을 내려 줘, 영화는 올려 주었다.

이처럼 (6)이 어색한 것은 예문의 부적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보조동사 “버리다” “주다”의 생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김기혁(1987: 19)에서 “-고”가 매개되는 보조동사 구조에서는 보조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한 것은 (6)의 비문법성이 보조동사의 생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어미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지금까지 살핀 네 가지의 특성은 “-어”형과 “-고”형의 모든 보조동사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외에 “-어”형은 동일 형태의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¹¹⁾ 동일 형태의 선행 동사 결합 가능성은 보조동사를 단순한 의미 전이가 아니라 독립된 범주로 세워야 하는 근거가 되는 특성이다.

- (8) a. 한 가지 의혹은...안락사를 법률이 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그런 상태로 뒤 두었을까 하는 문제다.
b. 그 사람이 미숙이를 완전히 버려 버렸어.
c. 나도 고시나 한 번 봐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d. ?이제 거의 다 가 간다.
e. ?거기다가 일단 봐 봐.

(8a-e)에는 “두다”, “버리다”, “보다”, “가다”, “놓다” 등이 각기 두 번씩

11) 동일 형태의 선행 동사 사용 가능성은 김용석(1983)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접쳐서 사용되었다. 앞의 것은 본동사로서 문장의 서술을 담당하고 뒤의 것은 보조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동일 형태의 연속 사용은 이들이 다른 의미 기능을 표현한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현대 국어의 보조동사 가운데 동일 형태를 선행어로 할 수 있는 것은 (8)에서 보이는 것처럼 5가지뿐이다. 동일 형태의 선행어 결합은 “-어”형의 모든 보조동사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약점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형태에 고루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구조들과 보조동사 구문이 구분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동일한 형태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구문적 특성을 가지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동일 형태의 V1 결합은 접속문이나 합성동사의 어느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보조동사 일부에서만 가능하더라도 보조동사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립성의 결여, 논항 수와의 무관성, 명제 대응어와의 결합 직접 가능성, 임의 생략 가능성, 동일 형태의 선행 동사 사용 가능성 등을 살펴 보았다. 이 다섯 가지는 보조동사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이런 점에서 네 가지가 보조동사 구조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합성어, 접속문 가운데 한쪽과 구별되는 특성

앞에서 다룬 다섯 가지 이외에 보조동사 구조를 합성동사나 접속문 중 어느 한 쪽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들이 있다. 보조동사 구조를 합성어와 구분하게 하는 특성에는 부사어와의 관계,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이 있다. 내적 비분리성, 문장 명사류의 직접 지배 관계,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 등은 접속문과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특성들은 보조동사가 적어도 합성어나 접속문의 어느쪽과도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보조동사 범주 구성에 타당성을 준다. 이들 가운데 부사어와의 공기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므로 간략히 언급하고 부사어와의 공기 관계와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사어 제약

보조동사는 부사어와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의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는 부사어의 수식을 직접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양상 부사와 공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사어는 서술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부사어와의 관계는 보조동사가 내용 서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¹²⁾

일반적으로 이은말은 부사어가 V1과 직접 어울리는데 비해 합성어에서는 V2와 더 잘 어울린다. 물론 이은말에도 간혹 부사어가 V2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합성어도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조에서는 부사어가 언제나 V1만을 수식한다. V2인 보조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¹³⁾

(10) 적당히 먹어(놓다/두다/보다/대다/버리다/주다/고 있다/고 싶다)

(10)에서 “적당히”는 언제나 “먹다”를 수식한다. 보조동사가 바뀌어도 문장의 논리적 서술인 “적당히 먹다”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명제에 대해 첨가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양상부사와 보조동사의 공기 제약은 둘의 의미가 충돌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양상부사는 말할이의 심리상태, 판단 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양상부사와의 공기 관계는 보조동사의 의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 a. 다행히
*b. 어처구니 없게도 } 그 사람이 처리해 주었다.

(12) 나도 { a. 기꺼이
*b. 저절로 } 그 일을 해 보았다

12) 부사어는 동사만을 한정하는 것과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양상부사는 문장 부사의 일종이다.

13) 김기혁(1987: 28~31)에서는 부사어가 보조동사구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았으나 실제적인 서술을 담당하는 V1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 (13) { a. 각고의 노력 끝에 } 병을 이겨 냈다.
 { *b. 저절로 }

(11)에서 보듯이 “주다”는 “다행히”와 같은 의미 범주의 부사어와는 제약이 없지만 반대되는 의미의 부사어와는 제약을 받는다. (12)는 “보다”가 “저절로” 등의 부사어와는 제약이 있음을 보여 준다. (13)에서 “내다”도 “저절로”와 같은 부사어와는 제약이 있음을 보여 준다. (11)–(13)에서 보조동사를 제거하면 각 b는 문법적이다. 따라서 (11)–(13)의 각 b가 비문법적인 것은 온전히 보조동사들의 의미와 부사어의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상부사는 보조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 경우는 낱말이 어휘 의미의 충돌로 제약을 받는 것과 다르다. 보조동사 구조와 양상부사어 사이의 이같은 제약은 보조동사들의 의미 파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상부사어와의 공기 제약은 비슷한 범주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동사들의 의미를 세분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

보조동사는 몇 개가 연속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형태가 연속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현대어의 구어에는 동일 형태가 중복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형태의 보조동사 연속 사용은 기존의 논문들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일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을 중점으로 알아본다.

현대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보조동사를 두번 겹쳐 사용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¹⁴⁾

- (9) a. 이제 그 일은 그만 잊어 버려 버려.
 b. 나도 고시나 한 번 봐 봐 볼까.
 c. ?내 말을 꼭 명심해 뒤 뒤.
 d. ?이제 편지를 거의 다 써 가 간다.

14) 김기혁(1987: 26)에서도 이러한 보조동사의 사용을 지적한 바 있다.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1987)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구어에서 쓰이는 것으로 실제로 소설 등에서는 그 예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동일 형태의 보조동사가 두 번 겹쳐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 그다지 일반적 인 것이 아니다. 글에 있어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담화에 사용되더라도 개인에 따라, 형태에 따라 수용성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또 문장 형식면에서는 어떤 형태는 명령문에서, 어떤 형태는 의문문의 형식에서만 나타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동일 형태의 보조동사가 중첩 사용되는 경향이 생겼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일 형태 보조동사의 이중 사용은 보조동사가 문법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현상이 보조동사의 문법화를 반증한다는 것은 “있다”를 통시적으로 검토할 때 잘 드러난다. 현대 국어에서 [-상태, -지속]인 동사의 완료에서 비롯된 상태의 지속에는 “-어있다”가 사용된다.¹⁵⁾ 이때 “있다”는 “-있-”과 자유롭게 결합한다. 통시적으로 볼 때 “-있-”은 “-어 있다”의 축약형이다. 현대어의 “-어 있었다”는 통시적으로 본다면 “-어 있다”가 두 번 겹쳐서 사용되는 것이다. “-어 있다”의 경우에서 본다면 중첩 사용이 가능한 보조동사들은 다른 보조동사들보다 문법화가 더 많이 진척된 단계에 있다고 할 만하다. 실제로 중첩 사용이 가능한 보조동사 “가다”, “보다”, “버리다”, “두다” 등은 그렇지 못한 “주다”, “오다”, “내다”, “대다”보다 대부분 오랜 사용 역사를 보인다. 이는 보조동사의 정립 시기에 따라 문법화의 진행 정도가 다르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¹⁶⁾ 통시적인 예에서 보면 동일 형태 보조동사의 중첩 사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에서 의문점은 형태가 무한히 연속되지는 않는다

15) 서정수(1990b: 126-137)에서는 동사를 상태성과 지속성에 따라 [+상태, +지속] [+상태, -지속] [-상태, +지속] [-상태, -지속]의 4가지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16) “지다”는 중세 국어에서부터 쓰임이 확인되는 형태이지만 ‘피동’을 표현하는 경우라도 겹쳐 사용되는 일이 없다. “지다”가 겹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피동 접미사 “-이/히-”와 함께 겹피동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동일 형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능을 표시하는 문법 형태소와 중첩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 보조동사의 중첩 사용과 기능면에서 상통하는 점을 보인다.

는 것이다. 아직까지 소설 등의 글에서는 보조동사가 2개 이상 겹쳐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¹⁷⁾ 더욱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동일 형태의 보조동사가 겹쳐 사용되는 것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뿐이다. 결합 순서에도 어느정도 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합 순서에 대한 것은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을 인정한 몇몇 선행 연구에서 세부적인 견해차를 보였던 것의 하나이다.¹⁸⁾ 보조동사의 위치는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리 바꿈이 언제나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조동사는 심리적인 표현기재이므로 순서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조동사가 일반적으로 3개 이상 연속 사용되지 않는다고거나 결합 순서가 자유롭지 못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3) 내적 비분리성

보조동사 구문은 내적 비분리성을 가진다. 내적 비분리성이란 V1과 V2 사이에 독립된 다른 성분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적 비분리성은 접속문과 보조동사 구조를 구분하는데 기본적인데, 비분리성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구분은 접속 어미 “-서”를 삽입하는 것이다. 접속 관계인 경우에만 “-서”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의 개입은 두 성분 사이에 낱말 이상의 독립된 성분이 개입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비

17)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동사가 세 개 연속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는 한다. 그러나 “-어”형이 연속 사용되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

· 이제 제물에 지쳐 허탈해진 심신을 좀 쉬어 두고 싶어졌다<이제 우리들의 잔을, 上: 184>

18)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이상태(1971)에서 복합동사구 구조에 대한 보조동사 구조의 특색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1971)에서는 보조동사가 연속될 때 자리를 바꾸어도 문법적이며, 많은 보조동사가 동시에 접속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례가 인위적이어서 수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후 옥태권(1988: 113)에서는 보조동사가 연속될 때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기혁(1987: 24~6)에서는 자리바꿈이 자유롭다고 보았다.

분리성은 보조동사 구문이 선행 구문과 후행 구문의 접속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4) 문장 명사류의 직접 지배 관계

보조동사는 문장 명사류와 직접 지배 관계에 있지 않다.¹⁹⁾ 보조동사는 주어와 주술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조동사 구문의 주어는 V1 과만 주술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보조동사를 상위문의 서술어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독립된 어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은 보조동사가 문장의 서술을 담당하는 기재가 아니라는 뒷받침이다. 문장 명사류와의 지배 관계는 보조동사의 설명에 문장 구조 밖의 말하기를 가설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5)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

보조동사 구조에서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은 V2에 결합된다. 보조동사 구조에서 주체 높임 “-시-”는 보조동사에만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²⁰⁾ 접속문에서 V1, V2에 모두 “-시-”의 결합이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 시상 표현에 있어서도 보조동사는 V2에만 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접속문은 V1과 V2에 모두 시상 표현이 가능하다. 김석득(1984)에서는 보조동사 구문에서 시상은 일반적으로 V1의 시상이 소멸하면서 V2로 이동되어 표시되며 이 시상이 보조동사 구문 전체를 지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¹⁾

그동안 보조동사의 특성으로 지적되어 온 것 가운데 후치사 통합 가능성

19) 보조동사와 문장 명사류의 지배 관계는 김용석(1983), 김석득(1986), 김기혁(1987) 등의 많은 논문에서 보조동사의 구문적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20) 보조동사의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에 대해서는 이상태(1971)에서 언급된 이래 김석득(1984), 김기혁(1987: 7~12), 김미영(1989) 등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21) “-게 하다”의 “하다”를 사동 보조동사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게 하다”는 V1, V2 두 군데에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일반적인 보조동사의 특성에 위배되므로 이 글에서는 보조동사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있다. 후치사 통합 가능성은 합성동사와 보조동사²²⁾ 따라서 이같은 구분은 합성동사와 보조동사 구문의 구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특수조사는 많은 경우에 삽입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보조동사의 특성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V1과 V2 사이의 특수 조사 개입 가능성은 보조동사 구문의 비분리성에 예외가 되므로 설명의 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치사 통합 가능성을 보조동사 구문의 특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보조동사 구조의 구문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조동사의 구문적 특성은 보조동사가 합성동사나 복합문의 어느쪽과도 동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이런 특성은 보조동사를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편입시키기보다는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나은 설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3.2 의미적 특성

보조동사의 의미적 특성도 구문적 특성처럼 보조동사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의미 기능 범주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보조동사 각각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졌다.²³⁾ 그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보면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은 어느정도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상적인 것과 양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법적인 부가적 의미는 보조동사 모두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 특성이다. 이외에 상반된 문맥에서의 사용 가능성과 의미 세분화가 보조동사들의 의미 기능 범주에 따라 나타난다. 보조동사의 모든 의미적 특성은 보조동사가 문장내 주어

22) 합성동사 가운데도 보조사 삽입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 “늘 어놓다”, “알아듣다” 등과 같이 보조사 삽입으로 V1과 V2가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을 통어적 합성동사로 취급한 바 있다.

23) 그간의 보조동사 논의는 구문적인 특성을 다루는 것과 더불어 개별 연구에 치중되어 온 감이 있다. 개별 형태의 의미 연구에는 이기동(1976, 1977, 1979a, 1979b), 구현정(1983), 김용석(1983), 김미형(1984), 김명희(1984), 옥태권(1988), 이정택(1988), 서정수(1990c), 손세모돌(1991) 등이 있다.

의 서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명제 전체와 관련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입증한다. 보조동사들의 의미적 특성은 보조동사만의 고유한 통사적 특성과 더불어 보조동사를 동일 형태의 의미 전이가 아니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할 근거가 된다. 이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문법적인 부가 의미

“문법적인 부가 의미”란 보조동사가 문장의 서술에 어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조동사가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구문적인 특징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생략되어도 문장의 논리적인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조동사는 형태상으로는 어휘 범주에 해당하지만, 의미 기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동작 등을 표현하지 못하여 문법 범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²⁴⁾ 이런 특성은 형태와 의미 사이에 불일치를 가져온다. 형태상 자립적인 실질형태소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의존적인 문법형태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동사 모든 형태에 해당되는 의미적 특성이다. 국어 보조동사의 이런 특성은 선행 용언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므로 구문적으로 자립성의 결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조동사의 의미가 문법적인 것이라는 데 어느정도의 합일을 본 지금 보조동사의 의미적 특성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또 비슷한 의미 범주의 문법형태소가 표현하는 의미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동안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조동사가 의미적으로 문장의 서술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사실을 “의미적 의존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왔다. 의미적 의존성이란 보조동사가 그 자체로는 독립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선행 용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동사의 불완전

24) 보조동사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상과 양태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 서술 기능은 본래 주어의 서술을 담당하는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일 뿐이다. 표면적으로 국어의 보조동사가 구문적으로 선행 용언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면에서 단지 선행 용언을 어휘적으로 보조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보조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선행 용언만이 아니라 문장 전체 단위이기 때문이다.

보조동사가 문장에 덧붙이는 의미가 선행 명제에 의존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존성이 서술에 관여하는 어휘 의미의 의존성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의미적 의존성”이라는 기존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 한다. 다시 강조하거나 보조동사의 의미는 주어의 서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용언까지를 포함하는 앞선 명제 전체와 관련된다. 때문에 보조동사는 의미적으로 선행 용언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명제에 의미를 부가한다고 보는 것이 구문적론으로나 의미적으로 설명적인 타당성이 있다.

2) 상반된 문맥적 의미 표현

보조동사의 의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동일 형태가 문맥에 따라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버리다”는 특히 그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형태이다.

- (1) a. 이슬이 아침해에 녹듯 아침이 되어 녹아 버리면 어쩌나 집을 냈조.
 b. 이슬이 아침해에 녹듯 아침이 되어 녹아 버리면 좋겠어요.

(1a, b)는 밑줄 친 후행절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다. 그런데도 (1a)는 선행 문장에 대한 ‘아쉬움’ 등을 표현하고 (1b)는 ‘부담의 제거’와 통한다. 두 의미는 매우 상반된 범주의 것이다.

기왕의 논의에서는 (1a, b)의 차이를 “버리다”의 세부 의미 차이로 파악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1)에서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버리다”에 의한 것

25) “버리다”의 세부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동(1976), 김명희(1984), 김미영(1989 : 22~3) 등에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1989)에서는 “버리다”가 “쌓다”, “대다”와 같은 양상 조동사로서 말할이의 인식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평

이 아니다. (1a, b)의 차이는 “버리다”의 뒷부분이므로 (1a)와 (1b)의 의미가 상반된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뒤따르는 문맥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1a, b)는 선행 문장에 대한 말할이의 아쉬움이나 부담 제거를 후행 절의 문맥 내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다. 또 “버리다”를 생략해도 (1a, b)는 ‘아쉬움’이나 ‘부담의 제거’ 등을 여전히 표현한다. 이렇게 볼 때 보조동사 “버리다”는 ‘아쉬움’이라든지 ‘부담의 제거’와 같은 의미에 대해 중립적이다. 따라서 기왕의 논의에서 ‘아쉬움/기대의 어긋남’ ‘부담 제거’ 등을 “버리다”의 세부 의미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세부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드러나는 문맥적 의미일 뿐이다.

때로 “버리다”는 (1)처럼 문맥에서 명확한 말할이의 심리 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아쉬움’ 따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문맥 내에 의미를 제약하는 표현 요소들이 존재한다.

- (2) a.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비해 규모가 작아 조금만 빨리 걸으면 궁궐 담이 곧 끝나 버릴 것 같아, (만우씨는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걸어서 현대 미술관 쪽으로 다가갔다.)
 b. 차라리 그가 요구하는 대로 3천 5백원을 쥐 버리는 것이 (훨씬 속편하지 않은가.)

(2a, b)는 후행하는 구절이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후행하는 구절이 괄호 안과 같은 의미일 때는 연결이 자연스러우나 반대의 뜻과는 부자연스럽다. (2a, b)에서 “버리다”를 빼면 반대의 뜻과도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2)의 의미적 제약은 “버리다”에서 비롯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보조동사 “버리다”가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아니다. (1)에서 살폈듯이 “버리다”가 사용된 문장의 상반된 의미 해석은 앞뒤의 문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2)에서는 밀출친 부분에 의해 이미 ‘아쉬움’이나 ‘부담 제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담이 제거되었다거나 아쉽다는 것은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에 따른 심리상태의 표현이다.

보조동사의 상반된 문맥에서의 사용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보조동사 형태가 모두 문맥에 따라 상반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조동사 가운데 상반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버리다” 이외에 “대다”와 “두다”, “놓다” 정도이다. 이들의 의미 대립은 “버리다”의 경우처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맥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²⁶⁾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평가는 보조동사 의미의 한 범주를 이루고 있다. 상반된 문맥에 사용 가능한 보조동사들은 판단/평가 따위의 심리를 표현하는 형태들이다. 두번째는 보조동사가 직접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에서도 보았듯이 보조동사는 단지 상반된 의미의 문맥에 사용이 가능할 뿐이다.

보조동사가 직접 상반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형태가 문맥에 따른 상반된 평가에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보조동사들의 문맥적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낱말들은 동일한 형태가 상반된 의미의 문맥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상반된 문맥에서의 보조동사 사용은 보조동사들의 중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3) 의미의 세분화

이것은 보조동사 가운데 상적인 표현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적 표현의 보조동사는 몇 개의 형태가 핵심 의미를 공유하면서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 구별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마치 낱말에 있어 유의어 관계에서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유의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보조동사들이 반드시 본래의 어휘 의미가 유의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 의미가 전혀 다른 형태들이 같은 범주의 의미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가다/오다/고 있다”가 ‘지속/진행’의 핵심 의미를

26) “대다”에 대해서는 김미영(1989)에서 “쌓다”와 함께 언급하였고, 허철구(1991)에서는 “두다”와 “놓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미영(1989)에서는 두 형태가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말할이의 인식 방법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인식과 긍정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허철구(1991)에서는 상황에 따라 말할이의 [+긍정적] [-긍정적] 평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공유하고 “어 있다/두다/놓다” 등이 ‘상태 지속’의 뜻을 공유한다. 이들은 부분적인 의미 자질에 있어 차이를 가지면서 보조동사가 표현하는 의미를 세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조동사들이 세부적인 의미 차이로 동일 범주의 상 기능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부사어와의 공기 제약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대치가 가능한 형태들이 특정한 부사어와 제약을 받는 것은 핵심 의미를 공유하는 보조동사 형태들이 어떤 의미 자질면에서 구분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 진행의 표현 형태들은 보조동사가 세부적인 의미를 나누어 담당하는 증거를 잘 보여 준다.

- (3) 여태까지 잘 { a. 살아 왔다. }
 { *b. 살아 갔다. }
- (4) 이제부터 열심히 { a. 살아갈거야 }
 { *b. 살아올거야 }
- (5) 거의 다 { a. 먹어 간다. }
 { *b. 먹고 있다. }

(3~5)에서 각 b는 어색하다. (3b)와 (4b)의 비문법성은 “오다”와 “가다”가 시역면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²⁷⁾ (5b)가 어색한 것은 “-고 있다”가 도착점이 있는 표현과 어울리지 못함을 보여 준다.

“가다”와 “오다”는 ‘진행/지속’ 표현에서만 의미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다. “지다”와도 의미를 분담하는 경향을 보인다.

- (6) a. 점점 창백해가다/지다/오다
 b. 완전히 창백해졌다/*갔다/*왔다.

(6a)에서 “점점”은 “가다/오다/지다” 모두와 어울린다. 세 형태가 모두 변화의 과정, 지속적이거나 진행적인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나 (6b)에서 보듯이 “완전히”라는 부사를 대입하면 “지다”만이 가능하다. 이는 “지다”

27) “가다”와 “오다”의 시역 차이는 김미형(1984) 등에 잘 설명되어 있다.

와 “가다/오다”가 어떤 의미에서 차별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다”와 “가다/오다”는 변화의 초점이 어딘가에 따라 구분된다. “지다”는 상태 변화에 초점이 있고, “가다/오다”는 [+지속성]에 더 초점이 있다. 다시말해서 “지다”는 단순히 상태 변화에 초점이 있으므로 그 변화가 완결되었더라도 표현이 가능한 반면에 “가다/오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더 초점이 있으므로 완결된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놓다”, “두다”와 “-어 있다”도 의미 자질에 따라 표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놓다/두다”가 “있다”와 ‘완결된 상태의 지속’을 핵심 의미로 공유하게 되는 이유는 “놓다/두다”의 ‘유지’라는 어휘 의미가 ‘-어 있다’가 표현하는 [+상태, +지속]의 의미와 상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놓다/두다”와 “-어 있다”는 선행 용언의 의미 자질에 따라 구별 사용된다.

- (7) 누워 { a. 있다
 * b. 놓다/두다 }
- (8) 닦아(/알아/덮어) { * a. 있다.
 b. 놓다/두다 }

(7), (8)에서 보듯이 “-어 있다”는 [+상태, +지속]의 동사들을 선행어로 하고 기타의 동사에는 “놓다”와 “두다”가 결합된다. 세 형태는 불완전 하나마 자동사와 타동사에 따라 또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관계가 유지되는가에 따라 “있다”와 “놓다/두다”가 구별 사용된다. “-어 있다”는 사동형의 동사와는 결합이 제약되며 완료 표현과도 공기하지 못한다. “두다”와 “놓다”가 (9)에서 보듯이 [+지속성] 여부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²⁸⁾ “놓다”는 [+순간], “두다”는 [-순간]의 자질에 의해 구분 사용된다.

- (9) 그대로 { * a. 놔 놓다.
 b. 놔 두다.

28) “두다”와 “놓다”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이기동(1979) 참조.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보조동사들은 동일한 의미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관계에 있다. 통시적으로 보면 후대로 오면서 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존의 형태들과 의미 영역을 분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언어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표현력이 증대되어 간다는 증거이다. 또한 앞으로 보조동사 형태의 증가가 기존의 의미 범주를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보조동사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보조용언은 구문적 연결체와 다른 것은 물론 합성동사와도 다른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형태상의 유사점을 근거로 보조용언을 합성동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또다른 설명의 복잡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조용언은 보조용언이라는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 설명을 더욱 간결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조동사의 의미적 특성은 보조동사가 문장내 주어의 서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명제 전체와 관련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입증한다.

3.3 화용론적 특성

보조동사의 화용론적인 특성으로는 화맥에 따른 결합 제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보조동사는 선행 용언과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상황은 일반적인 결합 제약이나 수용 가능성을 바꾸기도 한다. 거꾸로 제약 받지 않는 선행 용언이 화맥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합성동사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화맥에 따른 결합 제약의 변화는 보조동사의 화용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동사는 상황과 맞물려 완곡한 표현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완곡한 표현 효과들 역시 보조동사의 화용론적 특성이다.

1) 새로운 주어 결합 제약

보조동사가 화용론적 상황에 따라 결합 제약을 받는 경우는 “주다”에서 나타나는 주어 제약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어와 아무런 제약 관

제에 있지 않던 “주다”가 때로 몇몇 선행어에 있어서는 주어의 대상물에 따라 제약을 보인다. 이때 주어 제약은 인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어의 대상물에 따라 달라진다.

- (1) a. 빨래가 잘 말라 주었다.
 *b. 화초가 잘 말라 주었다.
 (2) a. 화초가 잘 자라 주었다.
 *b. 잡초가 잘 자라 주었다.

(1), (2)에서 각 a, b의 차이는 주어뿐이다. 그런데도 각 b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보조동사가 선행어와의 의미 차이에 의해 결합 제약을 가진다는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시한다. (1b), (2b)의 주어 제약은 세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빨래는 마르는 상태로의 변화가 좋은 것인 반면에 화초가 마르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또 화초가 자라는 것은 바라는 바이지만 잡초는 없어지기를 바란다. (12, 13)에서 보는 것처럼 “말라 주다”, “자라 주다”는 선행어와의 결합만으로는 제약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주어와 연관되어서만 제약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와의 관련에서 오는 수용성의 여부는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제약일 뿐이다. 주어와 관련된 이런 현상은 보조동사가 구문적인 제약뿐 아니라 화용론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증거이다.

2) 결합 제약의 해지

보조동사 중에는 선행 용언의 결합이나 주어의 인칭에 제약을 받는 것들이 있다. 선행 용언의 결합 제약 원인에 대해서 기왕의 논의에서는 선행 용언과 보조동사의 의미 차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²⁹⁾ 그러나 화용론적인 상황은 이러한 결합 제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결합 제약 해지는 보조동사의 결합 제약이 선행어와의 의미 차이에서만 연유하는 것이 아님

29) 선행 용언과의 결합 제약을 선행 용언과 보조동사의 의미 차이로 보는 견해에 김기혁(1987: 40~6 참조) 등이 있다.

을 나타낸다. 나아가 보조동사가 선행어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선행 용언까지를 포함하는 앞선 명제(혹은 문장) 전체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 주어 인칭 제약 해지

보조동사 가운데 주어 제약을 받는 대표적인 형태는 “싶다”이다. “싶다” 구문에는 원칙적으로 1인칭 주어만 가능하다. 그러나 때로는 3인칭 주어인데도 수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3) a. 철마는 달리고 싶다.

b. 희선은 그 자리에서 그만 달아나고 싶었다.

(3a, b)는 주어가 3인칭이지만 적격한 문장으로 받아들인다. (3a)는 우리가 흔히 듣던 구절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충분히 이해되므로 수용 가능하다. (3b)는 전지적 시점에서 말할이가 3자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서술을 한 것이다. 소설과 같이 전지적 시점에서의 서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3인칭 주어도 “-고 싶다”의 주어로 받아들여진다.³⁰⁾

평서문이면서 2인칭 주어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정’의 경우이다. ‘추정’ 상황에서는 인칭의 제약이 없이 2, 3인칭 주어가 허용된다. 이것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상황에 의한 주어 인칭 제약의 해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말할이가 어떤 상황을 단정하는 경우에는 2, 3인칭 주어가 가능하다.

(4) a. 그런 여자라면 아마 너(그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싶을거야

b. 아니, 넌 부정하지만 그때 분명히 너(그 사람)도 거기에 가고 싶었어

(4a)는 추정, (4b)는 단정의 경우이다.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정’은 가능하지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추정’과 ‘단정’에서 2,3

30) 드라마에서도 해설이 있는 경우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3인칭 주어와 “-고 싶다”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인칭 주어가 가능한 것은 둘이 전혀 별개의 의미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정과 단정은 매우 다른 의미 범주인 듯하지만 (4b)에서 보듯이 단정은 추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시한 것이다.

결국 “싶다”에 1인칭 이외의 주어가 결합 가능한 것은 타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말합이의 확신 정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전지적 시점이나 ‘추정’, ‘단정’ 등은 말합이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2) 선행어 제약 해지

보조동사 가운데 상황에 따라 선행어와의 결합 제약에 변화가 있는 형태에는 “주다”, “보다”, “가다”, “버리다” 등이 있다.³¹⁾ “주다”와 “보다”는 많은 선행어를 취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그것이 동사에 한정된다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보다”는 형용사를 선행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고 “주다”는 결합이 제약된 부류의 동사들을 선행어로 하는 예가 있다.

다음은 “보다”가 특수한 상황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 (5) a. 나도 좀 (너처럼) 예뻐(/ 행복해 / 기뻐 / 날씬해) 봤으면 좋겠다.
 *b. 너도 좀 (나처럼) 예뻐(/ 행복해 / 기뻐 / 날씬해) 봤으면 좋겠다.
 *c. 그 사람도 좀 (나처럼) 예뻐(/ 행복해 / 기뻐 / 날씬해) 봤으면 좋겠다.

(5)에서 “보다”는 ‘시도’가 아닌 ‘경험’이다. (5a)는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 의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5a)에서 선행어 제약의 해지는 말합이의 가정적인 소망 표현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소망 단계에서는 동작 뿐아니라 “나도 예쁘다”와 같은 상태에 대한 ‘경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적 상태의 경험은 남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는 없다. 때문에 주어가 2, 3인칭인 (5b, c)는 수용 불가능하다. (5a)는 특수한 구문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보다”의 선행어 제약이

31) 김기혁(1987 : 39~44)에서는 생산적인 보조동사도 의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문맥에서 제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음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없어지는 전형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보다”와 형용사의 결합은 (5)와 같은 특수한 구문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에서도 간혹 드러난다. (6)은 소설에서 인용한 것인데 (5)와 같은 구문의 제약이 없이도 “보다”와 형용사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 (6) a. 더울때면 얼마든지 더워 보라는 그러한 투다
- b. 한 번 철저히게 비참해 볼 작정시오
- c. 그렇다면 어느 시기 이후부터가...그는...그 스스로도 결코 행복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 수 없다.

(6)의 예들은 “보다”의 선행어가 동사에서 그 영역을 형용사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주다”가 제약되는 선행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경험자에게 [-유익성]을 가지는 동사들과 말할이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이다. “주다”는 명제가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기재이다. 행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동사들은 “주다”와 의미가 상충되는 바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결합이 제약된다. 또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다”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 (7) a. 고맙게도 그 사람이 나를 다 그리워해 주었다지 뭐니.
- ?b.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해 주었다. /그리워했다.
- (8) a. 차라리 누가 나를 마구 때려 주거나 욕해 주면 속이 편하겠다.
- ?b. 누가 나를 마구 때려 주고 욕해 주었다.

(7)은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와의 결합이고 (8)은 행위의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사와의 결합이다. 각 b는 수용 불가능하지만 (7a)와 (8a)는 수용 가능한 문장이다.

(7, 8)에서 각 a와 각b의 수용성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리워하다”와 같은 주어의 내적 감정 상태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또 단순한 내적 감정 상태에서는 어떤 유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워하다”는 심리상태이므로 동사에 속하기는 하지만 상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7a)는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말할

이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비꼬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말할이에게 유익했다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리워하다”와 “주다”의 결합이 가능하다. (7a)와 같은 결합은 특수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8)의 선행 용언 “때려 주다”, “욕해 주다” 등은 대상자가 1인칭과 2인칭 주어인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8a)에서 보듯이 말할이가 그 경험이 이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진다. (7), (8)에서 보듯이 보조동사와 선행어와의 결합 제약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선행어와의 의미 충돌에 의해 제약되지는 않는다.

“가다”와 “버리다”도 화맥에 따라 일반적인 제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김기혁(1987 : 40~1)에서 제시된 예이다.

- (9) a. 쫓발 백 개를 다 켜 간다
b. 나는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전부 겪어 버렸다

(9a)에서 “가다”는 “다”라는 부사의 도움으로 [±순간성] 동사와 제약 없이 공기한다. (9b)도 “일부러”라는 부사를 개입시킴으로써 어려움을 미리 겪은 것이 부담을 제거한 것이라는 함축 의미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보조동사의 결합 제약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조동사는 선행어나 주어 등의 다른 성분과 결합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합에 제약을 받던 성분과 특별한 상황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되거나 제약이 없던 성분과 새롭게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조동사의 화용론적 결합 제약 변화는 보조동사가 선행어와 관계된 것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4. 마 무 리

이 글에서는 보조동사의 특성을 주로 살펴 보았다. 보조동사들의 특성

은 보조동사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할 근거를 제공하며 보조동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문론적, 의미적, 화용론적 특성 모두가 보조동사가 선행 용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선 명제(혹은 문장)와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각 부문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구문론적 특성

보조동사의 구문론적 특성은 보조동사만의 특성과 합성어나 접속문 중 한 쪽과 구별되는 것으로 양분된다. 전자에는 자립성의 결여, 논항 수와의 무관성, 명제 대용어와의 결합 가능성, 임의 생략 가능성,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이 있다. 후자에는 부사어 제약과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 내적 비분리성, 문장 명사류의 직접 지배 관계, 주체 높임과 시상 표현이 속한다.

명제 대용어와의 결합 가능성이란 보조동사가 문장을 대용하는 “그래(그렇게 해)” 따위의 낱말에 직접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보조동사가 선행 용언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명제와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은 “-어”형 보조동사가운데 “버리다”, “보다”, “두다”, “가다”, “놓다” 등 몇 형태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동일 형태의 연속 사용은 보조동사가 선행하는 동일 형태와 다른 의미 기능을 표현한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또 몇 형태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일 형태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부류가 없으므로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보조동사는 부사어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서술의 모습을 상세하게 하는 부사어의 수식을 직접 받는 일이 없다는 것과 부사어의 공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조동사 구조의 앞에 오는 부사어는 언제나 선행 용언만을 수식한다. 부사의 직접 수식을 받지 않는 보조동사가 부사어와의 공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보조동사의 의미가 문장 전체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상부사와의 공기 제약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양상부사는 말할이의 심리 상태, 판단 등을 표현하는 문장

부사들이다. 양상부사와의 공기 제약은 보조동사의 층위가 선행 용언에 매여 있지 않음을 잘 드러낸다.

2) 의미적 특성

보조동사는 어휘 형태이지만 의미 기능에서는 문법 형태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의미적 특성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부가적 의미”와 “상반된 문맥적 의미 표현” 그리고 “의미의 세분화”가 그것이다. “부가적 의미”는 보조동사 전반에 걸친 의미적 특성이다.

“부가적 의미”란 보조동사가 문장의 서술에 어휘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문법 범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보조동사들은 상적인 의미나 명제에 대한 판단이나 심리를 표현하는 의미 범주를 이룬다. 심리적인 것을 표현하는 보조동사의 경우 동일 형태가 상반된 문맥적 의미를 표현한다. “버리다”가 대표적인 형태이고 “대다”등도 이에 속한다. 보조동사 자체가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낱말들은 동일한 형태가 상반된 문맥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조동사의 주요한 특성이 된다. 보조동사가 상반된 문맥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휘적으로 문장의 서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밖의 말할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보조동사들은 몇 개의 형태가 핵심 의미를 공유하면서 부분적인 의미에 있어 구별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다/오다/고 있다”가 ‘지속/진행’의 핵심 의미를 공유하고 “어 있다/두다/놓다”는 ‘상태 지속’의 뜻을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의미의 세분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3) 화용론적 특성

보조동사는 선행어나 주어 등의 다른 성분과의 결합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합에 제약을 받던 성분과 특별한 상황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되거나 제약이 없던 성분과 새롭게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결합 제약이 해지되는 형태들은 “싶다”, “보다”, “주다” 등이다. 이것은 구문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보조동사는 상황에 따라 완곡한 표현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주다”와

“보다”가 그 대표적인 형태들이다. 보조동사들은 의미를 변화하지 않고 다만 ‘명령’을 ‘시도’나 ‘요청’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완곡한 표현 효과를 얻는다. 이런 효과는 상황과 맞물려서만 나타난다. 화맥에 따른 결합 제약의 변화나 완곡 표현은 보조동사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보조동사의 화용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는 문자가 창제된 뒤로도 오래도록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관계로 근대까지 언어 사용이 발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 문법적인 기능은 어휘 의미보다 표현하기가 더 어려우므로 언어 사용이 능숙할수록 보다 다양한 문법적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추정은 보조동사의 형태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또 사용빈도가 활발해진다는 데에서 뒷받침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서울: 탐출판사.
- 구현정(1983). “‘내다’의 의미 연구,” (석사논문, 상명여자 사범대).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학위논문, 연세대>.
-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 관계 연구,” (학위논문, 이화여대).
- 김미영(1989). “국어 양상조동사의 연구,” (석사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 김석득(1984). “도움움직씨와 시상의 부담성,” <한글연구>, 연세대 한글문화연구소.
- _____ (1986). “도움풀이씨의 형태-통어론적 차원,” <말>, 11.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석사논문, 서울대)
- 박병수(1974). “한국어 명사 보문구조의 분석,” <문법연구>, 1.
- 서정수(1978). “국어의 보조동사,” <언어>, 3-2.
- _____ (1980).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1),” <한양어문연구>, 2.
- _____ (1990a). <국어 문법론>, 유인물.
- _____ (1990b). <국어문법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1990c). “한일 양국어의 보조동사 비교,” <겨레문화>, 한국겨레문화연구원.
- 성광수(1977). “봉사구문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박성의 박사 환력 기념논문집>
- 손세모들(1989). “행동 부과의 간접 표현,” <한양어문연구>, 7.
- _____ (1991). “보조동사 ‘주다’의 결합 제약과 의미,” <한국학논집>, 19.
- 손호민(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 안명철(1990). “보조동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 양동휘(1978). “국어 보조동사의 관용성,” <김영희 박사 송수 기념 논총>.
-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 연구,” (학위논문, 부산대).
-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 분석,” <문법 연구>, 3.
- _____ (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2.
- _____ (1978). “‘주다’의 문법,” <한글>, 161.
- _____ (1979). “조동사 ‘놓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3.
- 이승녕(1961). <중세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 이지선(1991). “국어 보조용언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석사 논문, 서울여대)
- 최현배(1980). <우리 말본>, 서울: 개정 8판: 정음사.
- 허철구(1991). “국어의 보조동사 연구,” (석사논문, 서강대)